제252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7. 9. 18 (1)

연 중 제 25 주 일

기도서 P. 439 C해

1독(아 모 8, 4—7절)
2독(디 모 전 2, 1—8절)
복음(루 가 16, 1—13절)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강론□

9월에 부르는 노래

김 진 소 신부

9월이면 우리는 목구멍은 쉬고 심장으로 노래를 부른다. 순교자의 노래는 살과 뼈 속의 후미진 구석까지 스며 배는 향기가 있다. 길가에 자기 초상화를 걸어 놓고 간 어느 장군을 위해서 웃음을 파는 노래가 아니다. 하느님의 심지(心志)에 불을 부치는 점화다. 그래서 순교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전신은 순교열에 뜨겁고 혈관에는 순교의 피가 끓어 오른다.

형장으로 향하는 순교자들의 얼굴에 행복과 기쁨이 흘러 넘쳤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 천국에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니 참으로 복된 날"이라고 말했다 해서, 순교자들은 내세(來世)의 몽유병자거나 무모한 자기 고집의 자살자가 아니다. 순교는 안일한 세상길, 타협하는 처세를 본받지 않은 세상의 증오다. 순교는 구원없는 전통과 제도 앞에 복음을 전한 역사의 미움이다. 봉건체제의 알 껍질인 인간차별 신분차별을 깨고 인간존엄 인간평등의 여명이 터지는 새역사의 진통이었다. 옹졸한 민족주의의 폭력앞에 인류애가 당한 폭행이다. 진리를 보존하는 파수직을 포기하기보다는 갈바리아의 모욕을 선택한 결단이다.

갈바리아의 길을 향해서 걷는 사람은 정치가도 장군도 엘리뜨도 아니다. 사랑에 세련되고 겸손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다.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은 휘청거리는 석양길의 나그네지만 믿음의 외길을 걷는 하느님의 포로다. "아버지 저사람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화목의 사람이다.

진리는 웅덩이의 물이 아니라, 깊은 산골짜기에서 바다를 향해 흐르는 물이다. 세상만사는 썩고 멸망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나 흘러가지 않고 하느님의 품안으로 모이기 위해 흐르고 있다. 사회는 변해야 하고 진리는 발전해야한다. 변화와 발전은 하느님의 땀이다. 창조의 땀은 하루에 끝나거나 완성되지 않지만 죽음을 예견한 노인처럼 하루에 성실과 힘을 다하여 최선이다. 순교자는 역사의 발전을 신경질적으로 재촉하는 촐랑이가 아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시대의 문화를 외면한 맹인이 아니다. 현실과 문화속에 허덕이는 인간의 숨소리를 예민하게 경청하는 청진기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순교자는 참 제자이다. 순교자를 현양하는 마음은 순교의 열에 투신하겠다는 인간의 진실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갱신식이다. 교회는 순교의 피가 메마를때 임종의 종을 치리라.

(둔율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단 식 기 도

새 우리말 큰사전은 단식기도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식 (=일정한 기간 동안, 맹물만을 마시며 의식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음)을 하면서 정성을 들여 하는 기도.」

이러한 단식 기도회가 지난 9월 12일부터 인천 가톨릭 회관에서 1969년에 서품된 16인 사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단식 기도회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69년 서품자 일동은 주께서 이 싯점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단식 기도회를 갖는다.

1. 가난한 자와 억눌린 형제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자신의 내적 쇄신을 위함에 있다.

2. 긴급조치로 구속된 학생, 교수, 언론인, 근로자, 성직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함에 있다.

3. 이상과 같은 우리의 뜻이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는 단식 기도 속에 지낸다.

1977년 9월12일
—1969년 서품자 일동」

사실, 진정한 국민총화가 요청되는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이러한 취지는 우리에게 더욱 더 큰 공감을 느끼게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옥중에 계신 문정현 신부도 몇일간 단식을 했었다 한다. 모든 것들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순교자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기도하는 복자성월이라서 더욱 그렇다.

공생활의 시작에 앞서 예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사십 일이 지났을 때에는 몹시 허기지셨다" (루가 4,2).

숲정이 산책

복 자 성 월

— 순교자에 관한 성경의 교훈

김 영 구 신부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혹은 정부에 반대한다든가, 습관 및 국가의 풍기를 문란케 하는 자로 몰아, 또한 영업을 반대하는 자 등의 이름을 붙여 투옥되며, 학대되고, 심지어는 소살(燒殺)되며, 참수(목베임)를 당하는 일마저 있읍니다. 그렇듯 신앙주의에 충성하다가 죽임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껐고 칼날을 피하였고 약했지만 강해졌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읍니다. 또 어떤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 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읍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읍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 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히브리서 11, 33—40). "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때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읍니까?」하고 부르짖었읍니다.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읍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빛으로 변하였읍니다. …… 그러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다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하고 부르짖었읍니다(묵시록 6, 9—17)." 이렇게 순교자의 실례와 박해자의 말로에 대해 묵시록은 그 정상을 말씀했읍니다.

순교자의 원어는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하셨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죽음도 마다 않고, 죽는데 이르러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순교자입니다. 때로는 순교자로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읍니다(마태오 10, 21). 그러나 두려워 할 일은 아닙니다(마태오 10,28). 다만 언제, 어떠한 경우에 처한대도 (그것이 닥쳐 온대도) 충분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읍니다(사도행전21, 13). 때로 신자는 배도자로 말미암아 순교자가 되는 일이 있고, 되어야 하는 일도 있읍니다 (묵시록 17,6 . 18, 24. 20, 10)—13).

순교자의 받을 보수는 면류관, 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상급등이다.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묵시록2,10).

제 2 회 순교자 현양대회
9월 18일, 숲정이에서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최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온 한국온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저 하시는 분을 구합니다.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남원지방 각1개 소
위와같이 대리점을 승설코저 하오니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전화4940)
군산 연락소 전화 3032
한 동 암 (모이세)

M°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 주 특 약 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② 4451 풍년제과 분점 앞

순교자들과 오늘의 우리

박 종 근 신부

우리는 모두 순교하길 열망한다. 생명을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한다. 성세 때 이미 우리는 순교까지도 결단하고 약속까지 했다. 순교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 신앙과 순교의 선배들인 우리 선조 순교자들은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랐다. 하느님의 뜻에 상반되는 인위적인 모든 법규, 사상, 풍속, 가르침, 주의(ism)를 버리거나, 따르지 않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당했다. 재산 몰수, 관직 박탈, 가정 파탄, 온갖 형벌 및 옥사나 참수등을 당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셨다. 은총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순교할 수 있었다. 순교자들은 신, 망, 애, 삼덕에 출중한 분들이었다. 따라서 기도 생활과 성사를 받는 생활에 충실하였고 결과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우리도 순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순교자들의 모범을 본받아

첫째, 오늘 우리 시대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재독하고 부단히 연구하며, 특히 오늘 우리시대의 하느님의 가르침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해야 한다.

둘째,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느님 뜻에 상반되는 체제, 법, 사상등을 과감히 폐기하고, 하느님 나라 완성의 종말에 모든 인간의 소산을 비추어서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한다.

셋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한다. 재산도, 부모도, 처자도, 지위도, 직업도, 생명까지도, 하느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포기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회심하여 쇄신된 생활과 신앙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없고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는 더욱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세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 안에 활동하셨던 하느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연약한 우리안에서도 활동하시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두 용기백배하여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 하느님과 함께 결국 승리할 것을 희망하며…… .

(덕진 천주교회 주임신부)

□주산반 · 부기반 · 경리실무반□
삼일주산경리학원
(국교부, 중고등부, 일반부)
정 진 경 (분 도)
☎ ② 1462
병무청←→구법원 중간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검정□
뉴—타자학원
원장 신 송 무(바오로)
전화 ②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사진기계 · 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쎄느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② 6219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타◎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③ 4577)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② 166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순교자 현양대회** (오늘 숲정이—해성 학교에서)…각본당은 참가자 숫자 등록바람
   ① 교구 합동미사…11시 ② 성 가발표회…가톨릭 센타 강당(오후 2시)
   ※ 누갈다 표지(一名 치명자산)와 복자 성당 참배를 적극 권장합니다.

※ 한국 천주교회의 초석이 되신 순교 선조 평신도들의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기 위해 공부합시다
□생활하는 신앙인(값350원) □형제애(값500원) □해방신학(값1,200원)
※ 평신도 사도직 뺏지판매(값300원)

2. **B·F팀 및 교구 말씀의 선포자 회합**(오늘 순교자 현양대회 후)
3. **전동 글로리아 합창단 성가 발표회** (24일〈토〉 오후 8시 전동성당)
4.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19일 〈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타)
5. **교구 중고등 학생 제2차 회장단 회의**(18일〈일〉오후1시, 가톨릭 센타, 회비200원 안건…추계 체육대회)
6. **프란치스꼬 재속3회 전주지구 간부모임** (24일 오후3시, 노송성당)

※ 이삭회 **신자 재교리**(매주일 오후 1시반, 가톨릭센타,3층 345 호실)
① 교리—바오로 서원 서 레지나 수녀님 지도 ②음악—생활음악 주창자…이일규 지도)

□ **방송안내…문화방송** (MBC)…매일 밤 11시 **25분**「별이 빛나는 밤에」이 순성 신부 방송
서해방송 (SBC)…매일 밤 11시 **30분**「사색의 오솔길」한 기호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성모회 월례회** : 18일 오전 10시, 강당
2. **성지참배** : 19일(월) 오전 7시출발, 점심지참 바람
3. **축 김진석(보좌) 신부 영명 축일** ! 21일(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사—오전 6시, **축하식**—오전 6시반
4. **첫 영성체** : 25일 10시 (공식)미사 중에
5. 본당 사무실에서 **빌려가신 도서 반납** 해주세요
6. **밀린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증 감사합니다** ! 큰 십자고상(강당)—소홍영(요한)
   사무실 책상—김한영(안또니오)

□ **지난주 봉헌금** : 110,6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박 종 용**

1. 본당 **상임 위원회** : 오늘 저녁 미사후
2.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선영을 위해 빠짐 없이 봉헌합시다. 봉헌 봉투를 사용 하세요(접수 25일까지)
3. **미사시간 엄수**, 미사는 앞자리에서
4. **명상의 집 신입 감사** ! (우아동편)고여옥 (15,000), 백성녀(금반지 1개,현금 1만), 백선희 (금비녀1개, 현금 1만), 최백순 (1만), 문복례, 최학용, 김삼상 (각5천). 김순이, 김복례, 김성권(각4천), 고양화, 안진, 김진호 (각3천), 김순향 (1천), 최복님 (5백)

□ **지난주 봉헌금** : 49,41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새성당 낙성식** : 10월 3일 오후2시, 미사 주교님집전
2. **새성당 신축 헌금 신입** : 김종태 (5천), 김수인(4천)
   前본당 주임 심바오로 신부님 100만원 송금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총계1,021,400원 수입5,330,456원
3.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27일 오후 7시반,
   예물은 본당 사무실에 접수
4. **성가 연습** : (월·수·토)오후 3시—어머니
   (토·일)미사후—청년, 학생

□ **지난주 봉헌금** : 38,64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임원 개선** ! 정기총회에서 선거, 총재임명
   회장—조성호(야고보), **부회장**—유기준 (요셉)
   선교 분과 위원장—장동주, 차장—강기연, 위원—각 신심 단체 임원 /**전례** 분과 위원장—유덕열, 차장—박인식, 위원—주일학교 교사 / **봉사** 분과 위원장—송영자, 차장—김옥이, 위원—각 반회장 /**재경** 분과 위원장—박상기, 차장—김화영, 위원—각구역회장 / **고문**—안복룩, 박홍기, 최용구, 윤화복, 김종술, 김수점, 오재희, 봉영숙, 임귀임 /**감사**—양규철, 김성원,
   ※ 각 구역회장, 반회장은 다음주보에 발표 (루가10,16?)
2. **추경 예산** 정기 총회에서 통과, 10—12월 교무금 납부 바람
3. **추석 합동 위령 미사** 27일 오전 6시, 25일까지 사무실에접수바람
4. **첫 영성체** : 25일 공식미사 중 (30여명), 기도,축하,협조를
5. **추석 불우아웃 돕기** : 25일(미사중) 특별 헌금 준비 바람.속죄의 뜻으로 이웃 돕도록 사무실에서도 접수

□ **지난주 봉헌금** : 45,0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부녀 주일** : 저녁미사 후, 월례회
2. **반상회** : 9반—20일. 10반—21일, 11반—22일, 12반—23일, 교무금 통장지참 바람
3. **합동 위령 미사** : 추석 오전 6시, 26일까지 반장님 통해 사무실에 접수바람 (성명 명확히 기재 바람)
4. **추석 불우 이웃돕기 특별헌금** : 25일 주일 미사중
5. **교무금 완납 감사** ! 9반—박요셉, 한완순, 조낙원, 10반—김덕연, 선옥순, 정양동, 11반—박기홈, 손귀례, 이익순, 이재득, 김복임, 최병화, 12반—김수종 김고분, 고동춘, 이안나, 조갑주, 주길남, 진한식

□ **지난주 봉헌금** : 44,16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순교자 현양 대회** : 오늘 11시, 숲정이 (교구 합동)
2. **고등 학생 지도에** 강용환 선생님 수고하시겠읍니다
3. **9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 ! 협조 바랍니다
4.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 강용환, 이명제, 오순화

□ **지난주 봉헌금** : 74,26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윤 섭**
사도 회장 **유 석 종**

1. **교미씨움** : 오후 2시
2.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신청 접수** : 사무실
3. **어른 남녀 교리** : 10월 부터 매주(금)밤 8시
4. **치명자산 9일미사** : (화) 새벽 6시까지
5. **글로리아 합창단 성가 발표** : 24일
6. **새성당 건립 헌금** 30,700,000원

※ **상양식에** 교우 다수 참석, 지난 13일 (제5차 성모 발현)

□ **지난주 봉헌금** : 119,195원

인쇄 보광출판사 ☎ 3—3272